

아트 서커스 <두 바퀴 자전거>



- # 캐나다 서커스 극단_24번째 창작공연
- # 마술사가 없는 마술_넌버벌_아트서커스
- # 가족을 찾아 달리는_두 바퀴 자전거

- 자전거를 무대 언어로 곡예 같은 움직임으로 표현한 넌버벌 아트 서커스
- 서커스 예술가 기욤 도앙의 자전적인 이야기인 가족을 찾아가는 기억과 감정들을 수준 높은 아크로바틱으로 환상적으로 연출
- 보이지 않는 마술사에 의해 살아 움직이는 마법 같은 무대
- 창단 43년차의 캐나다 퀘벡의 서커스 극단 디나모 테아트르의 공연

공연명	두 바퀴 자전거 Life-Cycle
공연장르	아트 서커스
제작	디나모 테아트르 (DynamO Théâtre)
만든 사람들	<p>컨셉 Guillaume Doin 기욤 도앙, Yves Simard 이브 시마흐 대본, 연출 Yves Simard 이브 시마흐 드라마트루기 Pascal Brullemans 빠스칼 브르르망 무대미술, 의상 Pierre-Étienne Locas 뵘에르 에티엔느 로카 마술효과 Stéphane Bourgoin 스테판 브호고앙 조명 Martin Sirois 마르땡 시호와 분장, 헤어 Suzanne Trépanier 수잔느 트레빠니 음악 Pierre Guy Blanchard 뵘에르 기 블라샤흐 조연출, 무대감독 Ariane Roy 아히안느 호와 기획 김단우 제작감독 장성은 한국제작 문화공감 출연 Guillaume Doin 기욤 도앙 인형조정, 무대 Gabrielle Garant 가브리엘 가항</p>

공연 상세 내용

캐나다 서커스 예술가 기욤 도양과 보이지 않는 마술사의 환상적인 마법이 펼쳐지는 년버벌 아트 서커스

- 디나모 테아트르의 아트 서커스 <두 바퀴 자전거>는 자전거를 사용하여 서커스극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2년의 제작 과정을 거쳐 자전거를 사용하여 서커스 예술가 기욤 도양의 자전적 이야기를 곡예와 같은 기술적인 움직임으로 전달한다.

바쁘게 살다보니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왔던 남자는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자신도 몰랐던 가족의 유품과 사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추억을 찾아 집을 둘러보다가 낡은 자전거를 발견한다.

수준 높은 다양한 아크로바틱, 보이지 않는 마술사의 놀라운 마술들은 음악과 함께 어우러져 주인공이 가족을 찾아가는 기억들을 환상적으로 연출한다. 창단 43년 차를 맞이하는 캐나다 퀘벡의 대표적인 서커스 극단 디나모 테아트르의 <두 바퀴 자전거>는 어린이들에게는 예술적 상상력을, 어른들에게는 정서적 공감을 선사한다.

- 예술 감독인 이브 시마흐가 아이디어 제공 및 각본, 감독을 맡았고, 서커스 예술가 기욤 도양이 콘셉트와 출연을 통해 어린 시절의 경험과 기억을 시적으로 담아낸 아트 서커스로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마법을 보여준다.
- <두 바퀴 자전거>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주인공이 가족을 찾아가는 기억들을 환상적으로 연출한다. 기억과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움직임의 해체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움직임을 발견하고, 움직임 안에 정체성의 탐구라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
- 이번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무대에서 보이는 1인 서커스 예술가 외에 보이지 않는 마술사가 존재하며 여러 다양한 놀라운 마술들을 선보인다는 점이다. 사진들이 날아가고, 종이 뭉치들이 튀어나온다. 우산과 테이블이 날아가고 스스로 움직이며, 현실의 공간은 순식간에 새로운 마술이 작용하는 공간이 된다.

공연 상세 내용

우리 가족들은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서커스 예술가 기욤 도앙의 자전적 이야기
창단 43년 디나모 테아트르, 캐나다 퀘벡에서 달려온 년버벌 아트 서커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한 남자는 자신도 몰랐던 가족의 유품과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자는 바쁘게 살다 보니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추억을 찾아 집을 둘러보다가 낡은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남자는 혼자 자전거를 타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페달을 밟습니다.
가족의 흔적을 찾으며 자전거가 지나는 길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두 개의 바퀴, 빙글빙글 도는 세월!
저는 운이 좋아요. 멋진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가족들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나는 영원히 슬퍼할까요?
우리 가족들은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인생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고...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낡은 상자에서 나온 자전거 이야기와 내 어린 시절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 서커스 예술가 기욤 도앙(Guillaume Doin) -

공연 Q&A

<두 바퀴 자전거>는 우리보다 먼저 태어난 가족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에 대한 공연이다.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한 주인공은 현재와 과거, 현실과 환상 속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

<두 바퀴 자전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이 프로젝트는 서커스 예술가 기욤 도양과 예술 감독 이브 시마흐의 만남에서 비롯되었다. 예술적인 자전거를 사용한 아크로바틱 서커스극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그 시작이었다. 기술적 움직임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며, 무대 언어로써 자전거는 극적이고 시적인 이미지를 제공해 공연과 관련된 곡예적 어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억과 가족 유산에 대한 작품을 생각해 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났나요??

기욤 도양(컨셉 및 출연): 서커스 예술가로서, 나의 첫 번째 아이디어는 내 서커스 실력을 이용한 연출을 생각해 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서커스와 곡예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시적이고 스토리텔링 도구처럼 사용하는 공연을 만들었다. 나는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캐나다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나의 정체성과 나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무엇이었는데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브 시마흐(아이디어, 각본가, 감독): 처음에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 알기를 원했다. 우리는 연구하는 동안, 기억을 교환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했다. 그동안의 경험과 우리가 간직했던 것들, 그리고 부모님. 어린 시절은 예술가들에게 매우 풍부한 자원이다.

관객들이 무엇에 집중하기를 바라나요?

이브 시마흐: 관객들이 작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생각했으면 좋겠다. <두 바퀴 자전거>의 대본에는 조명, 세트 및 소품 디자인, 움직임 및 음악에 대한 작업이 포함되었다. 나는 관객들이 작품의 다양함에 대해 발견하고 놀랐으면 좋겠다.

기욤 도양: 우리는 "시(詩)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싶었다. 관객들이 기본적인 기억에 얽매인 시적 언어에 깊은 감동을 받기를 원했다. 연극에는 행복하고 감정적으로 충전된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는 상복을 입었을 때에 오는 아름다움과 그것이 일생 동안에 주는 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우리의 기억 속에 일상을 시와 같은 순간들로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체소개 디나모 테아트르 (DynamO Théâtre)

캐나다 퀘벡에서 활동하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서커스 극단으로 아크로바틱 움직임, 신체 연기, 광대, 시적 상상력을 극적 언어로 사용하며, 어린이와 가족 관객들을 위한 극단만의 고유한 서커스극을 제작한다. 1981년 창립한 이후로, 디나모 테아트르는 24편을 제작했고, 5개 대륙 29개국에서 4,500회 이상의 공연을 했으며 1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10개의 상을 받았고 9번 후보에 올랐으며, 퀘벡과 캐나다 전국, 40개 이상의 미국 주와 15개의 유럽 국가에 걸쳐 투어를 했다. 전 세계 33개 축제에 초청되었고, 수년간 아시아, 즉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대한민국에서 광범위하게 투어를 진행한 바 있다.

대표작 <The wall>, <What if Romeo & Juliet...>, <The Nonexistent>, <Life-Cycle> 등